

설 명절기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

- 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… 대중교통 수송 증대
- 총 2,852만 명(일평균 570만 명) 이동… 설 당일 663만명으로 최다
- 설 전·후 4일간(2.9~12) 모든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
- 폭설, 도로결빙 등 기상악화 대비 사전점검 실시 및 대응체계 마련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2월 8일(목)부터 2월 12일(월)까지 5일간을 “특별교통대책기간”(이하 대책기간)으로 정하고,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“설연휴 특별교통대책”을 시행한다.
-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 동안 총 2,852만 명, 1일 평균 570만명(전년 대비 2.3% 증가)이 이동하고, 설 당일 663만명으로 최다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,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20만 대(전년 대비 3.1% 증가)로 예상된다.
- 귀성 출발은 설 전날(2.9, 금) 오전, 귀경 출발은 설 다음날(2.11, 일)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, 이동 시에는 대부분 승용차(92%)로 이동하고, 그 외 버스와 철도, 항공,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.
- 아울러, 연휴기간 중 여행을 가는 경우가 확대되는 추세로 이번 대책기간 중 국민의 19.6%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.
- 이번 교통대책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편의 제공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,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, 귀성·귀경·여행객 편의 증대, 교통안전 강화 등의 5대 추진 과제를 포함하였다.(☞ 세부 내용은 참고파일 첨부)
- 설 전·후 4일간(2.9~2.12)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, 대책기간 중 갓길차로를 운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지원하는 한편,

-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알뜰간식 10종 판매, 묶음 간식 할인(최대 33%)과 주요 상품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, 이동형 전기차 충전소(11개소, 충전기 19기) 서비스를 무상 운영*할 계획이다.

* 오창(남이), 치악(춘천), 음성(하남), 충주(창원), 고창고인돌(서울), 군위(부산), 입장거봉포도(서울), 옥산(부산), 예산(대전), 천안호두(부산), 망향(부산)

- 대규모 수송에 대비해 버스·철도 등의 대중교통 운행도 늘릴 계획(11,682회, 83만 9천석)이며, 교통위반·음주운전·안전띠 미착용 등 불법행위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,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“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, 기온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,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질서를 준수해달라”고 당부하며,

- “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, 이동 중에도 휴게소 혼잡정보 안내,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”을 강조하였다.

※자세한 사항은 참고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재평 (044-201-3804)
		담당자	사무관	김광수 (044-201-3791)
담당정책 <교통안전>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동훈 (044-201-3230)
		담당자	사무관	최혜리 (044-201-3867)
<버스>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주열 (044-201-3823)
		담당자	사무관	박삼범 (044-201-3824)
<도로>	도로국 디지털도로팀	책임자	과 장	김상민 (044-201-4130)
		담당자	사무관	안정인 (044-201-4135)
<철도>	철도국 철도운영과	책임자	과 장	김민태 (044-201-3970)
		담당자	사무관	홍종길 (044-201-4631)
<항공>	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신윤근 (044-201-4204)
		담당자	사무관	김동현 (044-201-4184)
<해운>	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	책임자	과 장	도경식 (044-200-5730)
		담당자	사무관	이종훈 (044-200-5733)

